

21세기 비전 / 21세기 비전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21세기 IT 교육 주도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비유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없다. 특히 IT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더욱 더 그렇다. 누구나 한번쯤 공감했겠지만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교육은 직장에 취직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교육의 이중고(二重苦)’를 감내해야만 한다. 이것은 교육의 단절을 의미하며, 교육에의 재투자를 부채케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불고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 바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IT 전문가가 필요하다

21세기를 몇 달 앞둔 현 시점에서 21세기 비전을 말하는 것은 너무 늦은 대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운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상사는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은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 문화, 정치 활동은 물론 쇼핑이나 미팅, 심지어 영화관람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없이는 불편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초고속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유지하며,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

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네트워크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은 대략 2,50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에 반해 2000년까지 필요한 네트워크 전문가의 수요는 2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기술관련직 인력이 19만명 정도 부족하며,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70% 정도가 전문 IT 기술인력의 부족을 기업 성장의 장애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 전문가들은 향후 3년동안 네트워크 전문가의 수요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취업전문기관인 리쿠르트 등에서도 국내 네트워크 전문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네트워크 전문가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교육부와 정통부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IT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금전적, 시간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콤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네트워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2년 경력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억 400만원씩 총 2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IT 분야의 전문가 양성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 작업이 필요함을 역설해주고 있다. 즉 직장에서의 전문가 교육에 앞서 대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가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태동된 것이 바로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이다.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란?

지난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국대와 호남대가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채택, 내년부터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국내도 네트워킹 전문가 기근의 예외지대가 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는 지난 1993년 기업 최초로 일선 학교를 위한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설계와 구축만으로는 향후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네트워크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교직원들의 교육시간 부족으로 인해 교육대상을 학생들로 바꿨고, 이것이 인기를 끌면서 교과과정과 지원활동이 정례화되어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다.

네트워크 업체 최초로 상아탑을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설계, 구축했던 기업인 시스코는 학교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에 쫓기는 교직원들 대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지금의 네트워킹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탄생 배경이었다.

4학기동안 실시되는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는 국내 및 국제적인 조지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설계, 구축, 관리를 위해 실습으로 교육하는 완벽한 프로그램이다. 즉 단순히 케이블을 배치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부분망 차단방법 같은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네트워킹 기술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에는 리저널 아카데미(Regional Academy)와 로컬 아카데미(Local Academy)가 있다. 리저널 아카데미는 이 프로그램의 중추적 기구로, 최소한 10개의 로컬 아카데미를 지원하면서 로컬 아카데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의 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로컬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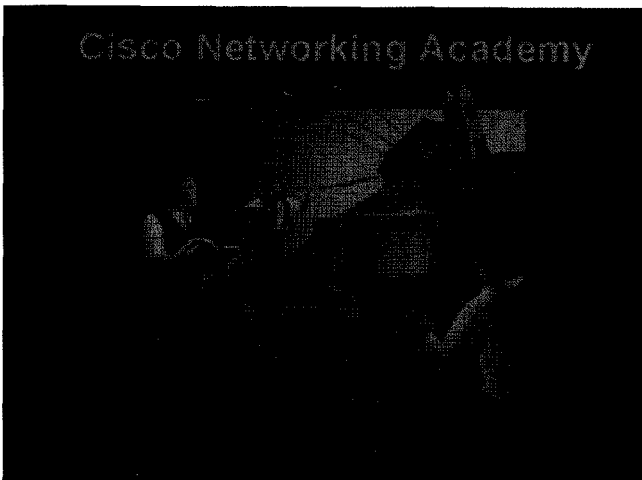
카데미는 리저널 아카데미로부터 강사교육 및 지원을 받으면서 스마트넷(SMARTnet) 서비스를 통해 시스코 기술지원센터(TAC) 및 시스코 온라인 접속 웹사이트 등에서 주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프로그램, 제품관련 최신 자료 등을 지원받는다.수업은 각 학급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교육 미디어와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1, 2년 정도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만 획득이 가능한 CCNA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CCNA는 시스코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자격증 중 하나로, 이를 획득한 학생은 일반적인 컴퓨터 기술수준을 웃도는 네트워킹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게 된다. 이로써 교육에의 이중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은 국책과제

현재 전세계 각 국가는 전문인력 양성을 최대의 국책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정통부를 중심으로 대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연구소 등에 대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돕고 있다. 국가에서도 그만큼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의미다. IT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네트워크 전문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업계들이 별도의 교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고급인력을 필요한 때마다 채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 아카데미와 같은 방법들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KCRC**

홈페이지 : <http://www.cisco.com/kr>

전화 번호 : 3451-4912 / 담당자 : 김재희 과장



CCNA 자격증은?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는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테스트하는 첫 관문에 해당한다. 시스코 인증제도 중 가장 쉬운 단계이며,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에서 첫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민간 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부 지원 국제 공인자격증으로 인정받아 교육에 들어갔다. 1998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CCNA를 취득한 사람은 5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CCNA는 1~2년 정도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네트워킹 아카데미처럼 실습을 겸비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어려움이 없다.